

폭염으로부터 주민 보호

익산시, 홀몸 어르신 등 집중관리... 주 1회 이상 전화·방문 등 모니터링 실시

익산시는 하절기 폭염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3800명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콜센터 직원을 투입해 주 1회 이상



취약계층에 전화를 걸어 건강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강보건전문인력과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도 1300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집을 방문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돕는다.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건강 취약계층과 재난 도우미에게 행동 요령 문자가 발송되며 자동마을방송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으로 피해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상황관리 TF팀을 통한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시는 살수차 4대를 투입해 폭염에 취약한 시간대에 시내 지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내버스 승강장 15곳과 보건소 임시산별진료소 등 16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 주요 도로에 그늘막 151곳을 설치했으며 자외선지수가 높은 오는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스마트 그늘막은 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스마트 그늘막은 기상 감지 센서가 내장돼 별도 인력 투입 없이 개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보건지소, 금융기관 등 506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농 직업체종과 건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제 운영을 유도하고 폭염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W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사업단 단장 박성신이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021 청소년상상학교'를 열고 있다.

'2021 청소년상상학교' 운영

군산대WSET사업단,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군산대 W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사업단(단장 박성신)이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021 청소년상상학교'를 열고 있다. 올해 2년 차인 '청소년상상학교' 프로그램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원하고 군산대WSET사업단이 주관하며, 인문·사회·이공 분야의 특강 및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발견, 인류 전반에 대한 미래비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강을 듣고 글쓰기 및 토론, 발표로 구성된 특강형과 대학연구실을 탐방하고 연구에 참여해보는 탐구형으로 나뉜다. 특강형은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김동식 작가(나를 작가로 만든 연결) ▲김이

재 경인교대 교수(행복한 성공으로 이끄는 지리의 힘, 지도력(地勵力)) ▲박만호 전북대학교 교수(이공계 리더 정신 함양을 위한 문제 해결 체험 및 이공계 진로 탐색) ▲이현주 남원시청 여성청소년과장(나를 작가로 만드는 나만의 상상) ▲한승재 울리코컴퍼니 대표(실 패로 이뤄낸 성공) ▲김채원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과 전문경력관(법과학자의 역할과 진로탐색) ▲이진숙 미술평론가(나는 누구인가? 미술사가 말하는 나의 성장에 관하여) ▲권혜수 전주영생고 교사(우리 지역 다크투어 함께 걷는 민주탐방 체험) ▲김응민 연세대학교 교수(바이오, 인문예술을 품어보다) 등 다채로운 분야로 구성되었다. 탐구형은 ▲해양생물과 함께 사는 기생충 ▲바이오메스로부터 연료기사를 생산하는 화학공정 ▲아두이노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 장치 제작 등을 주제로 총 10개의 군산대학교 연구실을 오를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건보공단 익산지사 장기요양 전문가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는 노인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내 장기요양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27일 익산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아래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기관을 선정해 2016년도 제1기를 시작으로 2020년도 제5기까지 2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고위자 과정을 수료한 지역 전문가들의 토론 모임으로, 지역 노인복지 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어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이나 우선 과제 등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어서 좋았다"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군산시보건소 치매인식센터는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시계형태의 스마트지킴이로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배회증상이 있거나 실종경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실종 시 위치확인 가능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무상보급 대상은 '치매인식센터에 치매로 등록된 자'로 배회나 실종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경우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의 특성상 충전 등 관리가 필요해 관리가 가능한 가족 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무상보급한다.

이번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은 SK하이닉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임직원이 기부를 통해 배회감지를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협약을 통해 치매인식센터에서 보급이 이뤄진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 판 시범 설치

환경부 주관 사업... 수용가능 인원·접근성 고려 군산대체육관 등 23곳 선정

군산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26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유·누출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지역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해 인체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실내대피장소다.

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의 거리를 최소 3km 이상 확보하고 취급물질, 수용가능 인원,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군산대체육관 등 23곳을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선정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시 홈페이지,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 및 SNS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는 화학물질의 정보, 안전한 대피요령 등 꾸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화학사고로 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보건소, 초등생 대상 여름방학 건강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권(소룡·산북·미성)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활기찬 건강생활을 보내도록 오는 8월 13일까지 3주 동안 스마트폰 SNS(밴드 가입)를 통해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부권 초등학생들의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교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아동에게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쑥쑥튼튼 건강꾸러미'를 지원

하며 꾸러미에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줄넘기, 아령 등 운동물품과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지루한 일상에 힐링타임을 주고자 컬러링북 등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밴드를 통해 생활 속 성장체조, 음악줄넘기 등 영상을 보며 각 가정에서 신체활동 미션 수행 인증으로 출석체크 된다.

또 청소년 음주·흡연·중독 예방 교육 영상자료도 함께 업로드해 건강생활 실천 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각 담당자가 건강관리

모니터링과 함께 신나는 여름방학을 위해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 영양학점 건강간식 만들기 조리실습 교육이 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체활동 후 사후평가를 위한 신체계측도 실시된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끝나무렵이 방학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보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 내에서도 신체활동 및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원광대 추영국 교수, 한국당과학회 차기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는 추영국(생명과학부) 교수가 한국당과학회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당과학회는 21세기 전략적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당과학 분야를 국내에서 활성화하고 미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6년에 정식 출범한 학술단체다. 추영국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

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추 교수는 "2022년 한국당과학회는 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식품공학, 의학, 당과학자를 초빙해 우리나라 당과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회원들이 국내외 저명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교수는 일본 도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부회장, 자연과학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